

GM, LG화학 배터리로 EV 재도전

LG화학, 배터리 안정성 · 내구성 강화 ... 1회 충전으로 320km 주행

GM(General Motors)이 1회 충전으로 320km를 주행할 수 있는 EV(Electric Vehicle)을 출시했다.

GM은 2017년 출시 예정인 EV <볼트: Bolt>를 공개했으며, 판매가격이 3000만원대로 저렴하고 1회 충전으로 320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010년 출시한 <볼트: Volt>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주행거리가 4배나 길고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.

LG화학의 미시간(Michigan)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로 기존 배터리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내구성이 긴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판매가격이 3만달러(한화 3273만원)로 책정되면서 EV 1위인 테슬라(Tesla)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테슬라는 2017년 EV <모델3>를 3만5000달러(한화 3818만원)에 출시할 예정이다.

월스트리트저널은 GM의 <Bolt>는 메리 바라 대표 취임 이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.

GM은 2010년 출시한 <Volt>가 각종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9만대도 팔리지 않아 EV 시장 진출에 실패한 바 있어 EV 진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1/12>